일 주 문

진기66년도 추기스승강공

진각종 총인 성초 정사는 10월 18~19일 서울 진각종 총인원에서 추기스승강공을 봉행했다.

신묘장구대다라니 30일 기도

서울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11월 1일부터 신묘장구대다라니 30일 기도에 입재한다.

불교문화둘레길 기획전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11월 11일까지 월정사 성보박물관에서 불교문화둘레길 만들기 기획전을 개최한다.

관조 스님 특별전 열어

부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10월 26일부터 11월 11일까지 범어사 성보박물관에서 관조 스님이 기증한 작품사진 특별전을 개최한다.

코레일 명예역장 위촉

장성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은 10월 17일 코레일 광주본부로 부터 명예역장에 위촉돼 이날 역무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FDC법제학회 국제조화상 수상

김성민 동국대 의생명공학과 교수는 10월 12일 (사)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국제조화상을 수상했다.

안중근의사 의거 103주년 기념식

민성진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은 10월 26일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안중근 의거일' 103주년 기념식과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문학타임 작가상 수상

부산여성불자회 왕선자 회장이 시집 '우바이 별곡(別曲)' 으로 '제1회 문화와 문학타임 작가상' 을 수상했다.

〈인사〉 전통불교문화원 국장 현중 스님 임명

조계종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국장에 현중 스님이 임명됐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0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전통불교문화원 국장 현중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1997년 직지사에서 성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현중 스님은 중앙승가대학교를 졸업했으며, 태화선원 등에서 안거를 성만했다.

신중일 기자

"문도화합으로 청담 스님 유지 계승"

혜성 스님 청담문도회 문장, 현성 스님 도선사 조실 추대

10월 15일 열린 청담문도회 문장 및 도선사 조실 추대법회. 앞열 오른쪽이 이날 추대받은 청담문도회 문장 혜성 스님, 왼쪽이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

수행가풍과 청년 포교 등 한국불교 근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조계종 원로 혜성 스님과 현성 스님이 청담문도회 문장과 도선사 조실로 각각 추대됐다.

도선사 청담문도회는 10월 15일 서울 도선사에서 추대법회를 열고 문도회 문장(門長)으로 혜성 스님, 조실(祖室)로 현성 스님을 추대했다.

이날 법회에는 청담장학재단이사장 동광 스님 등 청담문도회 문도 스님들을 비롯해 前 동국대 교수 법산스님, 불교인권위원장 진관스님 등 사부대중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도선사 주지 선묵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혜성 스님과 현성 스님은 사율에 밝고 수행 외길을 오롯이 걸어오신 수행자의 표상"이라며 "사부대중은 두 어른스님을 중심으로 원융산림을 완성하고 청담대종사의 종지종풍을 더욱 굳건히 하자"고 당부했다.

추도사에 이어 선묵 스님은 혜성 스님과 현성 스님에게 불자를 올렸다.

청담문도회 문장으로 추대된 혜성 스님은 "청담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더욱 발전시키고 단합해 문중이 빛내야 한다"며 "문도화합을 이끄는 문장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선사 조실로 추대된 현성 스님도 "도선사는 청담스님의 제자들과 불자들의 노력으로 현재의 모습을 이룰 수 있었다"면서 "문장 스님과 함께 가람수호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혜성 스님은 청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57년 동산스님을 계사로 조계사에서 사미계, 1962년 동산스님을 계사로 범어사에서 비구계를 각각 수지했다. 40여년 간 서울 도선사 주지, 회주로 이끌었으며 중앙승가대학 학장, 제3·10대 중앙종회의원, 봉은사 회주, 불교TV 이사 등을 지냈다. 현재 청담종합사회복지관장 등을 맡고 있다.

현성 스님은 서울 선학원에서 청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65년 부산 선암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보살계와 비구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총무부장, 교무부장, 제 4·5·6·8대 중앙종회의원, 도선사 주지, 청담학원 이사장,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장, 동국대 이사, 중앙승가대 총장,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 현성정사에 주석하며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총재 등을 맡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프랑스 지금은 한류가 대세"

파리 7대학 얀익 한국학 학과장 예방

"프랑스에서 지금 한국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학과 불교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진 상태입니다."

10월 16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한 프랑스 파리7대학 한국학 학과장 얀익〈사진〉 교수가 힘줘 말한 내용이다.

이날 예방 자리는 지난해 자승 스님의 프랑스 방문 당시 맺어진 인연으로 이뤄졌다. 얀익 교수는 10월 18~19일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이 주최하는 제5회 규장각 국제심포지엄 '한국이 본 중국, 중국이 본 한국' 에 발표자로 한국을 찾았다. 파리7대학은 8대학과 함께 종교와 문화 등 인문학을 담당하는 대학이다.

얀익 교수는 "최근 파리대학에서도 한국학 학생이 200명, 동아시아 학을 포함하면 5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수업을 수강하고 있다"며 "늘어나는 학생들에 학과장으로서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특히 한국에 대한 연구가 유럽에서도 활발히 이어져 한국과 한국불교를 알리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자승 스님은 "파리대학 한국학 학생들을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다"며 "그들이 템플스테이를 통해 불교를 체험하고 한국상황을 둘러본다면 느낀 점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얀익 교수는 자신과 관련 학자들이 집필한 한국학 프랑스어 논문집을 자승 스님에게 선물했다. 노덕현 기자

"신도 역량강화와 조직화 이룰 터"

중앙신도회 24·25대 이취임식

신도회발전을 서원하는 이기흥 신임 회장(좌)과 김의정 前 회장

조계종 중앙신도회 24·25대 회장 이취임식이 10월 13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렸다.

사부대중 1천여 명이 참석한 법회는 김의정 회장의 7년 성과를 돌아보고 이기흥 회장의 취임을 축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기흥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25대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여러 선배 종도님들의 업적을 잘 계승하고 발전 시켜야 한다는 중압감도 느끼고 있습니다"라며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 중앙신도회가 종단과 불교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중앙신도회 제 24대 25대 회장 이취임식을 맞아 발원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중앙신도회 25대 집행부는 '신도조직 활성화, 불교적 인재양성, 가르침의 사회적 회향' 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혜숙 기자

대원상 포교대상 각묵 스님 · 불광 선정

특별상에는 대불청 · 황경환 회장

각묵 스님

황경환 회장

대한불교진흥원(원장 김규칠)은 10월 11~12일 제10회 대원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수상자를 선정했다.

포교대상에는 △출가부문에 각묵 스님(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재가부문에 월간〈불광〉 및 불광출판사(대표 지홍스님) △특별상에는 대한불교청년회(중앙회장 정우식), 황경환 바른불교실천포럼 회장 등이 각각 선정됐다.

콘텐츠대상은 수상자가 없었으며 장려상에 정문수(다큐멘터리 '경술 국치 100년 문화재 수난사'), 홍석화(애니메이션 '석굴암') 씨 등이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1천만 원, 특별상은 5백만 원, 장려상은 2~3백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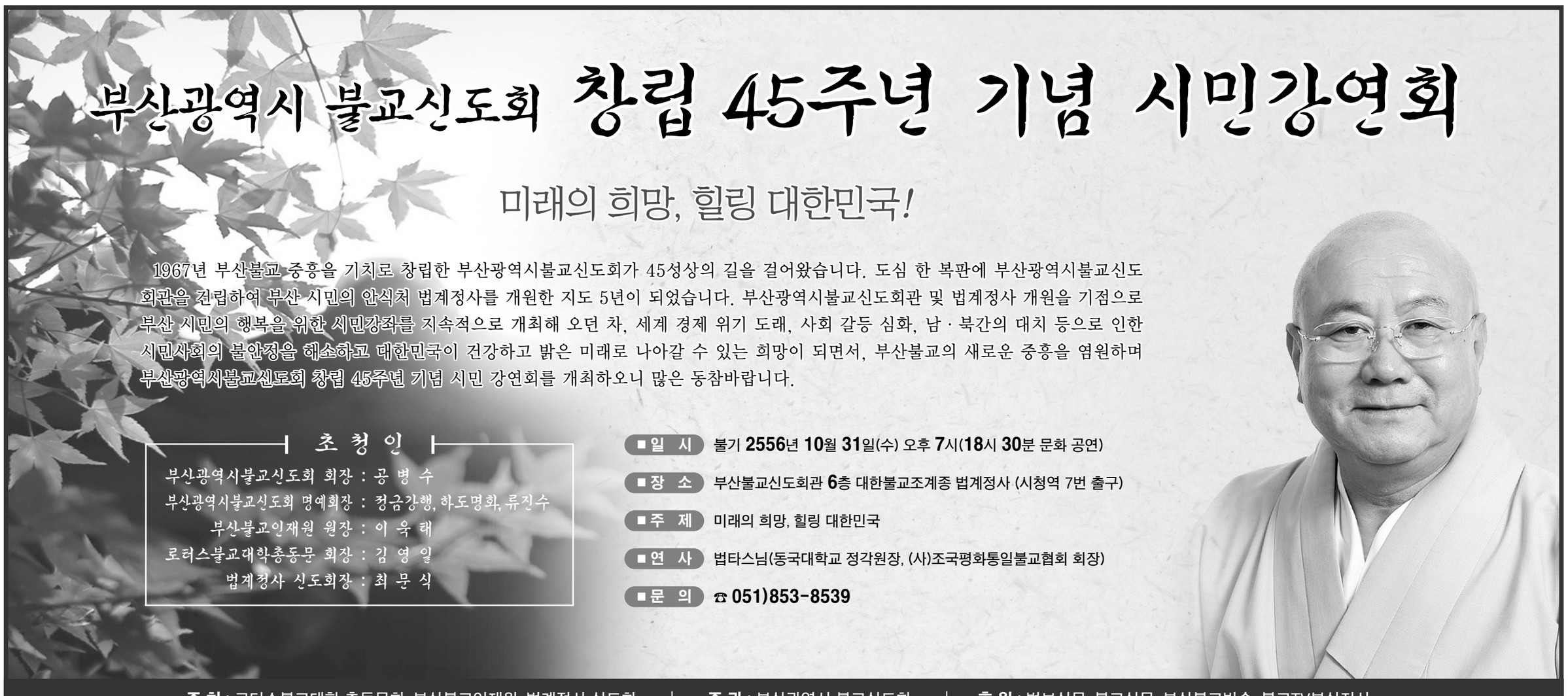
출가 부문 대상을 받은 각묵 스님(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은 지난 20년간 초기 불교의 교학과 수행체계를 널리 알리는 초기불전들을 한글로 옮기는 번역불사를 꾸준히 전개하며 불교의 현대화를 통한 불교교리의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재가 부문 대상을 받은 월간〈불광〉및 불광출판사는 전법운동으로 대중 포교를 주창했던 광덕 스님의 문서포교, 매체포교의 유지를 받들어 불교신행지 잡지 월간 〈불광〉을 발행했으며, 또한 인접 분야 관련서를 발행해 불교출판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시상식은 10월 26일 오후 3시 다보빌딩 3층 법당(다보원)에서 열린다. 정혜숙 기자

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장 각운 스님

사단법인 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이하 전사련)는 10월 12일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에서 제2대 회장 각운스님 추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추대법회는 전국지부종단 대표자 및 사부대중 6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사무총장 대명스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국제불교조계종 반야합장단과 문화예술단원의 환영무와 김기욱 선생의 태평가 연주로 추대법회의 시작을 알렸다. 총재 각성스님은 추대 법어를 통해 "각운 대종사의 회장추대 취임식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경종이며 전사련의 초 대승적인 화합,단결을 위해 지혜의 노를 잘 운용하여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대외협력위원장 성철스님의 봉행사와 전국관리위원장 무공스님의 환영사, 축사 등이 이어졌다. 제2대 회장으로 추대된 각운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전사련은 200여 전국 회원종단이 가입된 국내 굴지의 불교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한국불교를 이끌어 갈 수있는 중심에 서 있으며 그 어느 불교단체보다 자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회장으로서 회원간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종회의장 보각스님의 대국민메세지, 무무암 총무 자비심의 발원문 낭독으로 대법회가 마무리 되었으며 이날 법회로 전사련은 각운 대종사 체제로 출범하게 되었다. (02)2198-5022 노덕현 기자